

전북지역 제조업체 체감경기 나빠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 82로 기준치 100 훨씬 밑돌아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계속해서 기준치 미만 수치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도내 업체들의 더욱 압박하고 있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전북 도내 9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2016년 3/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가 82로 집계됐다.

기업경기침체를 뜻하는 BSI는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반면에 100미만이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뜻한다.

문제는 지난 2015년 3/4분기부터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도내 제조업체들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올라 갈 움직임이 안보인다는 것.

실제로 2015년 3/4분기 91, 4/4분기 89, 2016년 1/4분기 80, 2/4분기 82, 3/4분기 8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고용상황 '100'을 제외하고 매출액 '88', 영업이익 '88', 설비투자 '82' 등 나머지 항목들은 지난 분기 대비 모두 악화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음식료 '121'를 제외한 섬유·의복 '85', 종이·나무 '85', 화학관련 '87', 비금속광물 '45', 금속기계 '72', 자동차 '85' 등 모든 업종이 기준치를 하회해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음식료의 경우는 계절적 성수기와 더불어 지난해 체결된 한중 FTA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기업 중 수출기업 BSI는 110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했으며, 내수기업은 6포인트 하락했다.

수출기업의 경우 지난 분기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도 지난 분기보다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작용해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내수기업의 경우에는 납품 단가 하락과 내수침체 등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108로 중소기업(7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업들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장기 저성장구조 고착화(86.9%)'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약화(62.0%)', '신성장동력의 부재(14.1%)',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부진(12.0%)' 등을 차례로 꼽았다.

최근 저성장기 생존전략으로는 '기술혁신'이라는 응답이 44.1%로, 사업재편(23.4%), '건축경영(13.5%)'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29.0%)', '창업 중소기업 위한 자금지원(27.8%)', '신학력 지원을 통한 R&D 확대(12.4%)'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전북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경기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과 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삼계탕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주요 대형유통업체에서 여름 판촉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산 삼계탕 일본 소비자 본격 공략

한국 삼계탕이 일본 여름철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보완식품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주춤해진 삼계탕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주요 대형유통업체에서 여름 판촉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삼계탕은 일본 현지에서 흔히 겨울철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판매는 저조한 편이다.

때문에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삼계탕이 한국의 대표적 여름철 스타미너 식품인 것과 콜라겐이 많이 함유돼 있는 미용식품인 것을 적극 홍보해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 층 및 여성층을 중심으로 소비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판촉행사는 삼계탕뿐만 아니라 김치, 유자차 등 대일 수출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릴레이 판촉을 추진해 한국 농식품의 대일 수출시장 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인진수기자

쿠팡 24시간내 배송완료 주목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로켓배송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다. 주문 상품을 24시간내 배송 완료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선세이전을 일으켰다.

이 같은 시스템을 발판 삼아 쿠팡은 지난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과학기술 전문지 테크놀로지 리뷰가 뽑은 2016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 선정 기준은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이뤘는지 여부

등이다. 쿠팡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4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로켓배송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로켓배송 시스템이 운영한 지 약 2년4개월의 시간동안 쿠팡은 기존 유통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다. 쿠팡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해 오픈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빠른 배송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이다. /인진수 기자

난항 겪던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 탄력

국민임대에서 공공주택으로 근거법 전환에 따라 8월 착공 계획

10여년간 장기 표류하던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지구 조성공사가 대행개발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IH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완주삼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삼례읍 수계리 일원 91만4,978㎡ 면적에 1,8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9년 12월까지 주택 5,759호, 인구 1만4,428명 수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청 이점을 전제로 지난 2007년 사업계획이 수립됐지만 완주군청이 용진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체수요 발굴이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삼봉지구가 국민임대에서 공공주택으로 사업 근거법이 전환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먼저 IH 전북지역본부 부지조성공사부의 일부를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매각금액으로 대체하는 대행개발방식 입찰을 통해 부지조성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8월에 착공하는 등 사업지구를 조기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구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선형 공원녹지축 설정, 고속도로 소음저감을 위한 충분한 공원 녹지 확보로 방음벽이 없는 단지조성, 총 밀도 161.991/ha 최고층수 25층이하 중밀도 공동주택계획,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 등을 고려키로 했다.

IH 관계자는 "장기간 표류중인 완주삼봉지구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전용면적 85㎡이하인 5,6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접 산업단지 종사자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지구 조감도

및 완주군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광영기자

커피라떼 신제품 3종 출시

매일유업의 대표 라떼 브랜드 '카페라떼'가 330ml 마일드라떼·카라멜 마끼아또·초콜릿라떼 3종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330ml 신제품은 원두 분쇄부터 추출까지 바로 뽑는 스피디 프로세스로 고급스러운 원두의 풍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풍부한 우유로 맛을 더욱 부드럽게 뽑아냈다. 여기에 벨기에 생초콜릿, 생카라멜 시럽 등으로 라떼의 맛을 더욱 깊고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다.

상단에 캡이 있는 TPA(Tetra Prisma Aseptic) 드림캡 패키지로 언제 어디서든 보관이 편리해 야외 활동이 많고 이동이 잦은 여름철에도 라떼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매일유업 커피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미국 등 해외 시장 소비자들에게도 매일유업 카페라떼만의 차별화된 라떼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